



## 한전, 아시아의 기업에서 세계의 기업으로



이 원 걸

한국전력공사 사장  
02-3456-3114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이야 말로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도전을 통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최고의 글로벌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할 시점이다.

국내 전력시장은 이미 고인물로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10%대이던 국내 전력수요증가율은 환자 리수로 떨어진 지 오래이며, 2010년이 후에는 1%대 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민간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도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다투는 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살아 움직이는 해외 전력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공공, 민간 부문을 불문하고 선진 전력회사들 간의 국경을 초월한 경쟁은 날로 점입가경을 보이고 있다. 모두들 새로운 시장과 수익을 찾아 발벗고 나서고 있다. 런던 전체의 절반이 넘는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일은 영국의 전력회사가 아니라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인 EDF가 맡고 있다. 최근 인도 의 타타 그룹은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탄광을 인수하였으며, 싱가포르 국영 전력회사는 호주의 전력회사에 대한 M&A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또 홍콩, 동남아시아 등 신흥 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빈약한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외자유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다행히 한전은 지난 40여년간 국내 전력산업을 주도하면서 발전, 송배전,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노하우와 기술력을 쌓아왔다. 플랜트 설계, 시공, 구매, 감리에 이르는 종합관리 능력으로

유한점도강점이다. 또국내에는실력있는플랜트  
기업이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민간부문한전이  
함께손잡고신규시장을적극 공략한다면충분한  
가능성이있다.

흔히우리나라에서수출하면S사의반도체와H사  
의 자동차를떠올리게된다. 그러나발전소같은전  
력플랜트도이에 못지않은외화획득이가능하다.  
예를들면한전은1990년 중반필리핀전력시장진  
출시국내의82개 시공사및 기자재업체와의동반  
진출을통해서2억달러가넘는수출효과를거둔 바  
있으며, 현재까지필리핀현지의발전소를한전이  
직접운영하면서전기를관대하여올린매출액도  
조원을돌과하였다.

한전은필리핀에서의성공적사업경험과정쟁력  
을 심분 활용하여글로벌전력시장제국으로우뚝  
서고자한다. 플랜트업체와전략적협력관계를형  
성, 해외시장공략의문을계속두드릴것이다. 산자  
부 차관시절그 가능성을확인한해외자원개발도  
적극앞장설계획이다. 해외연료광산에대한M&A  
시장에적극 참여하고, 자원개발권획득과인프라  
수출이결합된패키지딜(Package Deal) 방식의 한  
국형자원개발모델도 적극추진하고자한다. 송배  
전 분야에서는건설형태의사업은물론, 송배전  
회사인수, 운영및 건설에참여함으로써국내관련

업체와의동반진출을선도할계획이다. 더불어기  
후변화체제출범에따라 신재생에너지가새로운  
블루오션으로떠오르고있는 만큼 풍력, 태양열,  
조력등 신재생에너지시장에도적극참여할생각  
이다.

다양한네트워크구축을통한다자간전략적협력  
관계강화에도주력할예정이다. 지난월 한전사  
장부임직후해외사업진출가능성이높은47개 국  
가의대사관및 KOTRA 사무소에서신을보내한전  
의 해외사업에대한협조를당부하바 있다. 지난5  
월의5개 에너지공기업이포인 에너지공기업EO  
클럽 발족과우리는행과외사사업금융협력에위  
한 전략적제휴체결을잇따라성사시킨것도이런  
맥락에서이다.

1957년 포춘지가선정한 세계200대 기업' 중 현  
재 남아있는기업은3분의1에 불과하다. 환경변화  
에 적응하지못하는기업들은한순간에서장에서  
도태되고만다. 모든일에는타이밍이중요하다. 지  
금이야말로 끊임없는자기혁신과도전을통해 한  
전이국내 대표 공기업으로서아시아를넘어 세계  
최고의글로벌종합에너지기업으로도약할시 점이  
다. 이러한기회를놓치지않기위해한전은더넓은  
세상을바라보며내일을준비중이다.

| 기술표준2007. 9

